케빈 해싯이 연준 의장이라면

- 케빈 해싯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주목
- 추가 금리 인하 속도 높이려고 노력하겠지만 운신의 폭은 제한
- 급격한 인하는 인플레 리스크↑, 통화정책 신뢰성↓, 연준 내부 반발↑

경제 Note

2025. 12. 4

케빈 해싯, 금리 인하 의지에 비해 제한적인 인하 여력

주요 외신 보도에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유력한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2일 트럼프는 신임 연준 의장 후보를 한명으로 좁혔으며 내년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동시에 케빈 해싯 위원장을 잠재적 연준 의장이라고 지목하며 사실상 후보 지명을 시사한 상황이다. 2026년 5월 파월의 임기가 종료되는 가운데 연초 대통령 후보 지명 이후에는 상원의 청문회와 인준 절차가 남아있다. 상원 청문회에서는 연준 이사직 수행을 위해 후보의 중앙은행 독립성과 인플레이션 안정 의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그러나 최근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의 인준 과정을 보면 이는 큰 걸림돌 없이 형식적인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케빈 해싯은 현재 트럼프의 최측근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공화당계 정치 인사이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들 중 가장 비둘기파적 성향과 함께 정부 친화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가 트럼프의 금리 인하 요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연준을 강하게 비판해온 점을 고려하면 향후 행정부와 정치적으로 긴밀한 연준 의장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2018년 2월 파월이 연준 의장 취임 당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객관적 데이터 기반의 통화정책 결정을 강조했던 것과는 상당히 대조된다.

케빈 해싯이 연준 의장이 되면 시장의 기대처럼 금리 인하에 속도를 내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금리 인하에 대한 의지에 비해 실제 운신의 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① 이미 9월을 시작으로 고용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금리 인하가 진행 중이고, 이는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1분기말 기준금리 상단 3.5%). ② 보험성 금리 인하로 경기는 완만하게 회복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남아있을 것이다. 이에 미국의 실질 중립금리와 관세 전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경로를 감안한 적정 기준금리는 3% 중반으로 추정된다. 3%대 초반이나 그 이하에서는 경기 회복과 맞물려 수요측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③ 더불어 매파 또는 중립의 정책 성향 비중이 높은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연준 의장 단독의 의지로 과감하게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미 연준 위원들의 중립 금리에 대한 눈높이가 3%대까지 높아진 가운데 정치적 판단에 의한 금리 인하는 내부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문다운
dw.moon@koreainvestment.com

한국투자증권은 당사 고객 및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맺은 법인에게만 리서치 리포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사전 승인 없이 리포트를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및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표 1> 연준 의장 후보자 비교

후보자	현재 직책	통화정책 스탠스	주요 발언 및 내용
케빈 해싯 (Kevin Hassett)	국가경제위원회 (NEC) 위원장	• 주요 후보들 중 가장 비둘기파적 인사 • 트럼프 행정부와의 정책 긴밀성 유지	• 자신이 연준을 운영 중이라면 지금 당장 금리를 내릴 것이라며 트럼프와 같이 기준금리 인하 공개적 지지('25.11.20) • GDP, 고용데이터 등 경제지표의 통계적 신뢰성에 의문 제기('25.08.03) • 관세 정책에 따른 미국 물가 상승이 나타나지 않는다며 연준은 관세 문제에 대해 매우 틀렸다고 비판('25.07.14) • 일각에서는 정치적 색채 강해 연준 통화정책 독립성 약화 가능성 제기
크리스토퍼 월러 (Christopher Waller)	연준 이사	• 현재 연준 위원 내 가장 비둘기파적 인사 • 주요 후보들 중 비교적 균형 잡힌 의견 제시	• 고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인플레는 큰 문제가 아니라며12월 금리인하 지지 발언('25.11.25) • 7월 FOMC 에서 25bp 인하 소수 의견(이례적 반대표 행사) • 통화정책의 신속한 대응을 강조하는 경향
케빈 워시 (Kevin Warsh)	전 연준 이사	• 전통적 강경 매파적 성향 • 최근에는 트럼프 요구에 맞춰 금리 인하 지지	• 연준의 구조 개혁 및 비전통적 통화정책(QE) 정상화 주장 • 연준이 금리인하를 주저하면서 신뢰를 점점 잃고 있다며 공개적 압박이 옳다고 발언('25.07.17) • 최근 금리인하 지지하고 있으나 기조적 스탠스는 매파 성향이라는 점에서 최종 금리 수준 눈높이 상향 조정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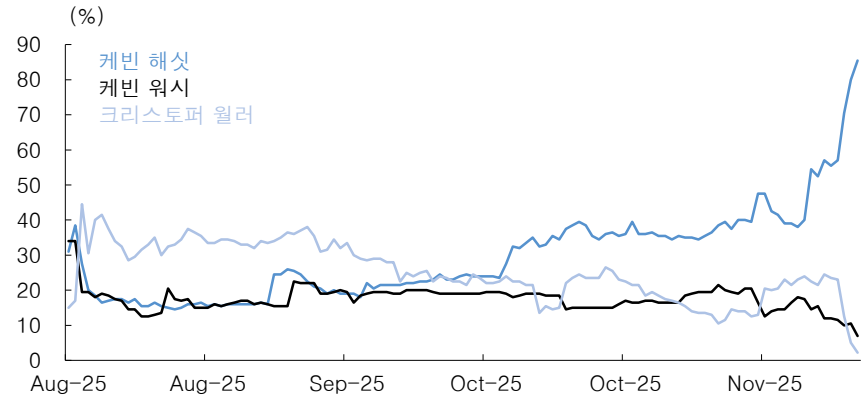
자료: 언론 취합, 한국투자증권

<표 2> 연준 위원 구성

위원	직무	성향	투표권 보유 여부			임기
			2025년	2026년	2027년	
연준이사회(Board of Governors)						**이사회 임기 종료**
제롬 파월(Jerome Powell)	의장	중립	Y	Y	Y	2028년 1월 (의장 임기는 2026년 5월 종료)
필립 제퍼슨(Phillip Jefferson)	부의장	중립	Y	Y	Y	2036년 1월
마이클 바(Michael Barr)	감독위원회 부의장	중립	Y	Y	Y	2032년 1월
미셸 보우먼(Michelle Bowman)	이사	비둘기파	Y	Y	Y	2034년 1월
리사 쿡(Lisa Cook)	이사	중립	Y	Y	Y	2038년 1월
크리스토퍼 월러(Christopher Waller)	이사	비둘기파	Y	Y	Y	2030년 1월
스티븐 미란(Stephen Miran)	임시직	비둘기파	Y	Y	Y	2026년 1월 (후임자 없을 경우 유지 가능)
지역은행 총재(Regional bank presidents)						**최대 재직 가능 기간**
로리 로건(Lorie Logan)	달라스	매파	N	Y	N	2038년 1월
베스 해먹(Beth Hammack)	클리블랜드	매파	N	Y	N	2037년 1월
제프리 슈미드(Jeffery Schmid)	캔자스 시티	매파	Y	N	N	2033년 8월
닐 카시카리(Neel Kashkari)	미니애폴리스	매파	N	Y	N	2038년 7월
알베르토 무살렘(Alberto Musalem)	세인트 루이스	매파	Y	N	N	2034년 4월
라파엘 보스틱(Raphael Bostic)	아틀란타	매파	N	N	Y	2031년 5월
존 윌리엄스(John Williams)	뉴욕	비둘기파	Y	Y	Y	2028년 6월
토마스 바킨(Thomas Barkin)	리치몬드	중립	N	N	Y	2028년 1월
애나 폴슨(Anna Paulson)	필라델피아	중립	N	Y	N	2035년 7월
수잔 콜린스(Susan Collins)	보스턴	매파	Y	N	N	2032년 7월
오스틴 굴스비(Austan Goolbee)	시카고	중립	Y	N	Y	2034년 8월
매리 달리(Mary Daly)	샌프란시스코	중립	N	N	Y	2028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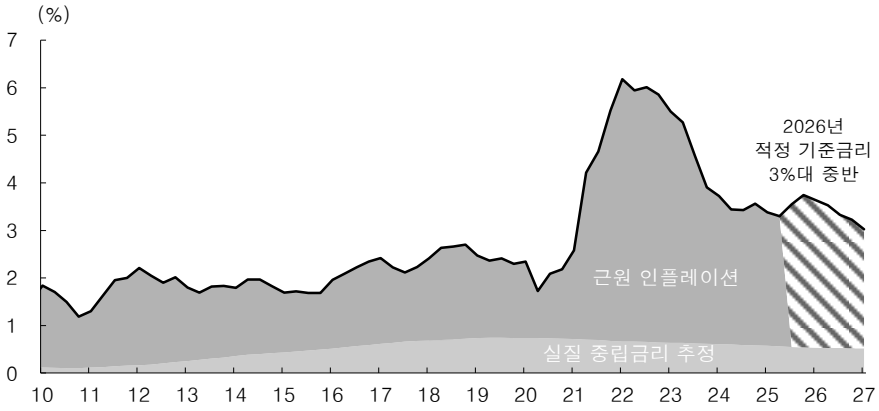
주: 정책 성향은 최근 발언을 바탕으로 당사 책정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1] 후보자별 차기 연준 의장 지명 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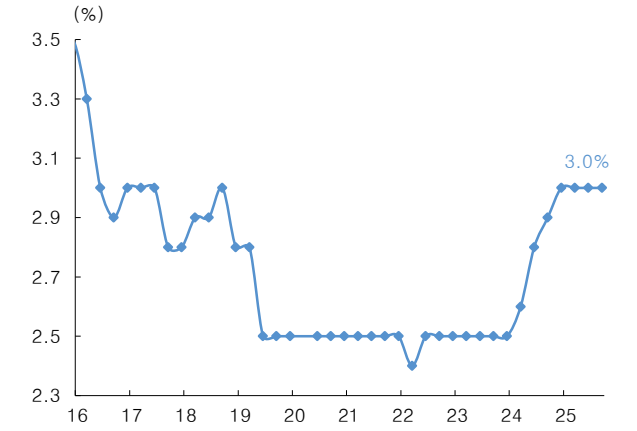
자료: Polymarket, 한국투자증권

[그림 2] 2026년 미국 적정 기준금리 3%대 중반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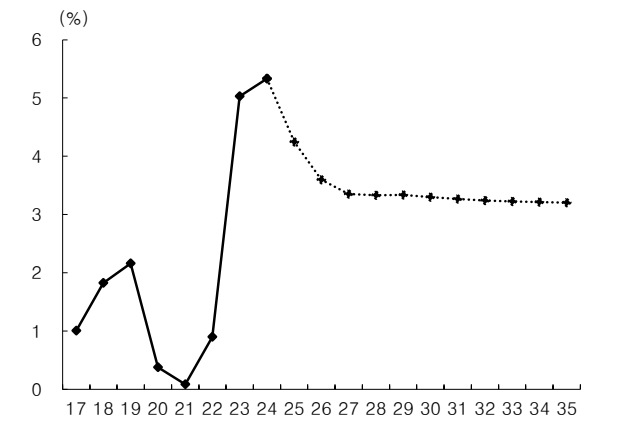
자료: BEA, 한국투자증권

[그림 3] 연준 위원들의 장기 기준금리 전망



자료: FRB, 한국투자증권

[그림 4] 미국 의회예산처 기준금리 전망



자료: CBO, 한국투자증권

■ 본 리포트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리포트는 당사 리서치본부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리포트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본부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